

사이버폭력 경험 및 포커싱적 태도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주은선^{1*}, 강주희², 백경은²

¹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²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임상 및 상담심리학 석사과정

The effects of Cyberbullying and Focusing Manner on Symptoms of Somatization

Eun Sun Joo^{1*}, Ju Hee Kang², Gyeong Eun Baek²

¹Duks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²Duks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Degree student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을 다루기 위해 포커싱적 태도의 관계와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총 366명(남 84명(23%), 여 282명(77%))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폭력 경험이 신체화 증상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알아차리기'와 '되새겨보기'는 신체화 증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하기'는 신체화 증상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을 호소할 때 포커싱적 태도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사이버 폭력 경험, 포커싱적 태도, 신체화 증상, 다중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of Focusing manner to deal with somatization symptoms of adolescents with experience of cyberbullying. For this study, we conducted on teenagers aged 14 to 19. A total of 366 of these results -84 men (23%) and 282 women(77%) - were used for the analysis. Data was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cyber-bullying experiences have a positive effect on somatizaion symptoms. Among the sub-factors of focusing manner, "knowledge" and "reviewing" have a negative effect on somatizaion symptoms, and "expression" has an negative effect on somatizaion symptom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need for a therapeutic approach to focusing manner was presented when appealing for somatizaion symptoms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cyberbullying.

Key Words : Adolescent, Cyberbullying, Focusing Manner, Somatization Sympt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Eun-Sun Joo(esjoo@duksung.ac.kr)

Received May 22,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Revised June 25,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1.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 상의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7년에는 동급생이 SNS에 올린 저격 글로 인해 한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고[1], 학생과 성인 10명 중 3명은 채팅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다[2]. 청소년들의 핸드폰,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학교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연구자마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3,4], '사이버 괴롭힘'[5], '사이버 따돌림'[6]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전자매체를 통한 따돌림, 협박, 괴롭힘 등의 전반적 행위를 총칭하는 의미로서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7,8].

사이버폭력은 전통적인 폭력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3,9,10], 그 중 대표적인 사이버폭력의 특징은 공격행동과 발생 공간에서 새로운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폭력의 공격 행동은 온라인상의 언어적 공격으로 심리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적 특징으로는 온라인상 가해자는 익명성이 보호되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시간 공간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즉각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격 내용이 빠르게 확장하고, 사이버폭력 피해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없어 심리 정신적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11-13].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신체적 문제(Physical problems)[14], 건강 악화[15,16]를 보고하였다. 또한,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신체적 문제(비통, 수면 문제, 두통, 긴장, 침구, 피로, 식욕 부진)를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17]도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 경험 이후 실제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신체 기관에 이상이 없음에도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신체화 증상이라 한다. 신체화 증상이란 신체 기관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신체 불편감과 증상들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경향을 가리키며, 이러한 증상들을 신체 질병으로 귀인하여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18].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체화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19],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이 신체화 증상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20,21].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를 인터뷰한 질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두경희(2015)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 중 사건 이후 관련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사건 당시와 관련된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며,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호소하였다[22]. Raskauskas와 Stolz(2007)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의 인터뷰 연구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겪는 정신 질환과 신체화 증상을 통해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3].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안현의(2007)의 연구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경험 이후의 심리적 적응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24]. 김윤주(2002)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는 수직적인 관계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규범에 따라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직접적인 정서 표현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25].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과 신체화 증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포커싱적 태도에 주목하였다. 포커싱적 태도에 주목한 이유는 '포커싱 치료'가 정서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촉진하여 새로운 정서 체험의 통합을 도와준다는 체험 심리 치료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커싱적 태도'는 자신에게 발생하는 문제나 특정한 느낌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과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생활하는 태도이다[26,27]

포커싱적 태도는 총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자신의 신체에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각을 알아차리고 지각과 인식의 과정을 통해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아차리기'라고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태도로, '여유 갖기'라고 한다. 세 번째 요인은 알아차리고 느낀 감각이나 감정·기분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려는 태도로 '표현하기'이다. 네 번째 요인은 자신의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느낌에 집중을 하여 의미를 되새겨보는 태도로써 '되새겨 보기'라고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은 포커싱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감정·기분·느낌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로 '받아들이기'이다[28]. 5가지 요인의 흐름으로 내담자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하고 여유를 갖는 태도를 가지며 치유하는 과정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경험과 심리적 피해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체적 피해 및 신체화 증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이버폭력 이후 신체적 증상, 신체화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상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을 다루는데 포커싱적 태도 및 포커싱적 치료의 임상적 활용에 도움이 될 기초적인 자료에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문제 1 :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신체화 증상 간의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가 신체화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방법

2.1 자료 수집 및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14~19세 청소년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해 2가지 방식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프라인(면대면)을 통한 설문지 배부와 온라인을 통한 설문지 배부를 하였다. 설문지 배부 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내용, 연구목적과 함께 응답한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대상자는 서울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 80명과 경상 지역에 위치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80명 설문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SNS를 통해 청소년을 모집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143명의 응답을 받았다. 총 403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설문지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한 온라인 응답 37명(9.2%)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66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사이버 폭력 경험 척도(Cyberbullying Scale-Korean Version)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Stewart 외 4인(2014)이 개발하였고[7], 서원진 외 3인(2015)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사이버폭력(Cyberbullying) 척도'를 사용하였다[8]. '한국판 사이버폭력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개의 문항은 사이버폭력을 당하거나 가하는 매체의 종류에 대한 질문이며, 나머지 14개 문항은 사이버폭력 경험에 대한 빈도수를 측정한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 경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15$ 이었다.

2.2.2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Korean Focusing Manner Scale- Revised;이하 KFMS-R)

포커싱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Hideaki 와 Yuko 가 개발하고 주은선 외 3인(2011,2016)이 번안 수정 개정한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개정판(KFMS-R)'을 사용하였다[26,27,29]. 한국판 포커싱적 척도- 개정판(KFMS-R)은 5개의 하위 문항으로, 알아차리기(9문항), 여유 갖기(6문항), 표현하기(5문항), 되새겨보기(8문항) 그리고 받아들이기(3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31개의 문항이다. 이 질문지는 몸의 느낌(신체 반응)에 대한 조사대상의 생각을 질문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로 3점 Likert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포커싱적 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4$ 이었다.

2.2.3 신체화 증상 척도

신체화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덕웅 외 5인(1993)이 개발한 척도이며 4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30]. 두통 증상(4문항), 소화 증상(8문항), 불면 증상(4문항), 심장 관련 증상(8문항)으로 총 24개의 문항이다. 이 질문지는 각각의 증상을 조사대상이 평소 어느 정도나 경험하였는지를 질문하고,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보고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54$ 이었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2.0 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연구 문제 1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문제 2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총 366명의 참여 청소년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Table 1을 보면, 참여자 중 남학생은 84명(23%), 여학생은 282명(77%)이었으며, 중학생 62명(16.9%), 고등학생 304명(83.1%)이다. 참여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은 3~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57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3시간 미만 사용 93명(25.4%), 5~7시간 미만 사용 69명(18.9%)이며, 7시간 이상과 1시간 미만은 각각 33명(9.0%), 14명(3.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1~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40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시간 미만 사용 116명(31.7%), 3~5시간 미만 사용 70명(19.1%)이며, 5~7시간 미만 사용과 7시간 이상 사용은 각각 28명(7.7%), 12명(3.2%)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2를 보면, 사이버폭력 경험과 신체화 증상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60, p<.01$)를 보인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신체화 증상 - 두통($r=.460, p<.01$), 소화계($r=.459, p<.01$), 불면($r=.523, p<.01$), 심장관련 증상($r=.544, p<.01$) -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신체화 증상 중 불면 증상과 심장관련 증상에서 높은 상관을 보인다.

포커싱적태도와 신체화 증상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444, p<.01$)를 보인다. 포커싱적태도의 하위요인과 신체화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포커싱적태도 하위요인 중 '알아차리기($r=.596, p<.01$)', '되새겨보기($r=.473, p<.01$)', '받아들이기($r=.178, p<.01$)'는 신체화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포커싱적 태도 하위요인 중 '여유 갖기'와 '표현하기'태도는 신체화 증상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329, p<.01$)가 나타난다.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포커싱적 태도 하위요인 '알아차리기'는 사이버폭력 경험과 유의미한 정적상관($r=.380, p<.01$)을 나타내며, '되새겨보기'와 사이버폭력 경험과 유의미한 정적상관($r=.378, p<.01$)결과를 보인다. 또한, 포커싱적태도 중 '받아들이기'와 사이버폭력 경험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129, p<.05$)가 나타난다. 반면, 포커싱적 태도 중 '여유 갖기'와 '표현하기'와 사이버폭력 경험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Categories	Frequency	Ratio(%)	Categories	Frequency	Ratio(%)	Mean	S·D	
Female	282	77	Mobile Phone usage time	Less than 1 hour	14	3.8	3.038	.9758
				1~3hour	93	25.4		
				3~5hour	157	42.9		
				5~7hour	69	18.9		
				More than 7 hours	33	9.0		
Male	84	23	Internet usage time	Less than 1 hour	116	31.7	2.126	1.0471
				1~3hour	143	38.3		
				3~5hour	70	19.1		
				5~7hour	28	7.7		
				More than 7 hours	12	3.3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n=366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29**	1									
3)	.380**	.791**	1								
4)	-.035	.446**	0.48	1							
5)	.065	.594**	.185**	.335**	1						
6)	.378**	.847**	.675**	.153**	.348**	1					
7)	.129*	.666**	.362**	.302**	.471**	.480	1				
8)	.560**	.444**	.596**	-.025	-.033	.473**	.178**	1			
9)	.460**	.401**	.509**	-.002	-.005	.422**	.185**	.863**	1		
10)	.459**	.377**	.532**	-.041	-.039	.379**	.178**	.896**	.684**	1	
11)	.523**	.348**	.496**	-.084	-.040	.399**	.118*	.840**	.713**	.648**	1
12)	.544**	.433**	.557**	.01	-.028	.471**	.143**	.921**	.726**	.747**	.717**

* $p < .05$, ** $p < .01$

1) Cyberbullying 2) Focusing Manner 3) Awareness 4) Keeping one's composure 5) Express 6) Reflect 7) Accept 8) Somatization symptom 9) Headache 10) Digestion 11) Insomnia 12) Heart disease

3.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

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이 신체화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의 '알아차리기', '표현하기', '되새겨보기'는 신체화증상의 50.7%를 설명하였다. 사이버폭력 경험(β

Table 3. The results of stepwise regressio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2	ΔR^2
Somatization symptom	(Constant)	.242	.141		1.718			
	Awareness	.601	.075	.407	8.016***			
	Cyberbullying Experience	.461	.050	.372	9.190***	94.899***	.513	.507
	Express	-.265	.060	-.173	-4.398***			
Somatization symptom_Headache	(Constant)	.214	.219		.979			
	Awareness	.666	.117	.332	5.716***			
	Cyberbullying Experience	.492	.078	.292	6.299***	50.848***	.360	.353
	Express	-.274	.094	-.132	-2.921**			
Somatization symptom_Digestion	(Constant)	.448	.165		2.721			
	Awareness	.685	.070	.445	9.784***			
	Cyberbullying Experience	.387	.058	.299	6.669***	73.742***	.379	.374
	Express	-.225	.067	-.141	-3.351**			
Somatization symptom_Insomnia	(Constant)	.265	.187		1.423			
	Awareness	.658	.079	.373	8.291***			
	Cyberbullying Experience	.578	.066	.389	8.800***	78.319***	.394	.389
	Express	-.245	.076	-.134	-3.214**			
Somatization symptom_Heart disease	(Constant)	.061	.156		.390			
	Awareness	.532	.083	.340	6.413***			
	Cyberbullying Experience	.479	.056	.364	8.611***	79.719***	.469	.463
	Express	-.278	.067	-.171	-4.167***			
		Reflect	.279	.095	.164	2.944**		

* $p < .05$, ** $p < .01$, *** $p < .001$

=.372, $p<.001$)은 신체화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포커싱적 태도는 하위요인에 따라 신체화 증상에 상반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포커싱적 태도의 ‘알아차리기($\beta=.407, p<.001$)’, ‘되새겨보기($\beta=.086, p<.001$)’는 신체화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표현하기($\beta=-.173, p<.001$)’는 신체화 증상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현하기($\beta=-.173, p<.001$)’는 신체화 증상에 유의미한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체화증상의 하위요인에 따른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이 신체화 증상(두통)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35.3%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경험($\beta=.292, p<.001$)은 신체화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커싱적 태도의 ‘알아차리기($\beta=.332, p<.001$)’, ‘되새겨보기($\beta=.133, p<.05$)’는 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하기($\beta=-.132, p<.01$)’는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이 신체화 증상(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식의 설명력은 37.4%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알아차리기($\beta=.445, p<.001$)’와 ‘사이버폭력경험($\beta=.299, p<.001$)’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표현하기($\beta=-.141, p<.01$)’는 부정적으로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이 신체화 증상(불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38.9%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이버폭력경험($\beta=.389, p<.001$)’과 ‘알아차리기($\beta=.373, p<.001$)’가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표현하기($\beta=-.134, p<.01$)’는 유의미한 부적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이 신체화 증상(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식의 설명력은 46.3%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알아차리기($\beta=.340, p<.001$)’와 ‘사이버폭력경험($\beta=.364, p<.001$)’, ‘되새겨보기($\beta=.279, p<.01$)’ 순서로 심장질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표현하기($\beta=-.171, p<.001$)’는 심장질환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 증상과 하위요인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면, 사이버폭력 경험은 신체화 증상에 전반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커싱적 태도 중 ‘알아차리기’는 신체화 증상에 전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되새겨보기’는 신체화 증상 중 두통과 심장 관련 질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표현하기’는

신체화 증상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들은 사이버폭력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 간에 포커싱적 태도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포커싱적 태도의 ‘알아차리기’와 ‘표현하기’가 전반적인 신체화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4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 신체화 증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경험과 신체화 증상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이며, 사이버폭력 경험이 신체화 증상 및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이버폭력 경험이 주요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사이버 상에서 경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9-21].

둘째,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가 신체화 증상 및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하위요인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경험’과 포커싱적 태도 중 ‘알아차리기’와 ‘되새겨보기’는 ‘신체화 증상’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포커싱적 태도 중 ‘표현하기’는 신체화 증상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중 회귀분석 연구 결과에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변인 중 유일하게 ‘표현하기’가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키는 변인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포커싱적 태도 하위요인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27]. 사람은 스트레스 반응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알아차리기’를 통해 자신의 신체 감각을 알아차린 후 알아차린 것을 다시 살펴보는 ‘되새겨보기’ 과정을 경험한다[27]. 그 후 ‘표현하기’와 ‘받아들이기’로 나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신체 감각이나 감정, 기분 느낌 등)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진행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경험과 ‘표현하기’의 부적 상관관은 포커싱적 태도의 흐름에서 자신이 알아차린 감정이나 기분, 정서를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표현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과정을 어려워하며, 자신의 스트레

스를 알아차리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신체화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31], 스트레스 알아차림과 표현과정 없이 문제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둘수록 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한다[17].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도 단순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언어 혹은 비언어의 방식을 통해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을 상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담 장면에서 포커싱적 치료과정은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신체에 느껴지는 감각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며, 명확하지 않은 신체에 느껴지는 것(감각 느낌, Felt sense)이 명확해지는 체험을 경험한다[32]. 상담을 통해 신체화 증상을 감각 느낌(Felt sense)에 집중하고 이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상징화가 감각 느낌(Felt sense)에 부합될 때 감각 느낌은 또 다른 감각 느낌으로 전환되며 정서 상태와 신체를 긍정적으로 재배열한다[28]. 신체에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포커싱적 치료과정은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치료에서 포커싱적 치료는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에 효과적이다[31].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설명력에 영향을 초점을 두었으며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이버폭력의 특징과 경향성 및 사이버폭력 행동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경험 이후의 신체화 증상 및 포커싱적 태도라는 치료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결과를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고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청소년들에게 신체 감각과 정서의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과정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포커싱적 치료적 관점의 상담적 개입으로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고 표현을 도와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참여한 참여인원의 성별은 남성 23%(84명), 여성 77%(282명)으로 여성 청소년의 인원이 70% 이상으로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둘째, 14세에서 19세까지의 범위를 청소년의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연령 및 학령의 특성에 따라 사이버폭력 경험을 세분화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 경험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것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및 게임 등의 일면식 없는 상황에서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알고 있는 대상과 알지 못하는 대상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과 노출의 구분 또한 후속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실제보다 더 축소하거나 과장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연구 방법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J. H. Kim. (2017). Tragedy of a 15-year-old girl's soul—destroying "SNS Sniper.". JoongAng Ilbo. <https://news.joins.com/article/21936311>.
- [2]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9).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2018 cyber-bullying surve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142>.
- [3] I. T. Lee. (2012). A Study on the Status of Cyber Bullying and their Cause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um for youth culture*, 32, 91–118.
- [4] H. J. Han & H. J. Jeong. (2014). Trends in Research Regarding Cyberbullying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Communication Studies.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24(-), 180–217.
- [5] W. S. Lim & H. S. Choi (2010). Actual Conditions of Cyberbullying and the Countermeasure.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6(1), 122–137.
- [6] Y. S. Seo. (2002). Understanding Cyber Youth Culture. *Dankook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7, 41–61.
- [7] Stewart, R. W., Drescher, C. F., Maack, D. J., Ebesutani, C., & Young, J. (2014).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investigation of the Cyberbullying Sca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12), 2218–2238. DOI: 10.1177/0886260513517552
- [8] W. J. Seo, Chad Ebesutani, M. R. H, Lee & T. S. Lee(2015). A Validation Study of the Cyberbullying Scale—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4), 839–854. DOI: 10.17315/kjhp.2015.20.4.008
- [9] H. Choi & J. S. Baek. (2015). A Study on the Variables of Cyber Bullying Exper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3(4), 195–20.

- [10] Kowalski, R. M., & Limber, S. P. (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22-30.
DOI: 10.1016/j.jadohealth.2007.08.017
- [11] D. J. Shin & M. J. Lee. (2006). Violence and Social Control in Cyberspace.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0(1)*, 149-196.
- [12] F. Dehue. (2013). Cyberbullying research: New perspective and alternative methodologie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6.
- [13] S. J. Ryu. (2013). A Study on the Cyber Violence and Offline Violence Experiences in the Teenagers.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5)*, 297-324.
- [14] K. Williams, M. Chambers, S. Logan & D. Robinson. (1996). Associations of common health symptoms with bullying in primary school children. *British Medical Journal, 313*, 17-19.
- [15] R. M. Kowalski, S. P. Limber & P. W. Agatston. (2008). Cyber 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DOI: 10.1111/j.1467-9604.2009.01431_5.x
- [16] K. Rigby. (2003). Consequences of bullying in school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8*, 583-590.
- [17] H. S. Shin & B. Y. Khu. (2001). Stress Coping and Its Relationship to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9*, 189-225.
- [18] Z. J. Lipowski. (1998). Somatization: The concept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358-1368.
DOI: 10.1176/ajp.145.11.1358
- [19] R. Kowalski, M. Giumetti, G. M. Schroeder, A. N. & M. R. Lattenner. (2014). Bulling in the digital age: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research among youth. *Psychological Bulletin, 140*, 1073-1137.
- [20] P. Gradinger, D. Strohmeier & C. Spiel. (2009).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Identification of risk groups for adjustment problems. *Zeitschrift Für Psychologie/Journal of Psychology, 217(4)*, 205-213.
DOI: 10.1027/0044-3409.217.4.205
- [21] T. H. Selma & F. Ercan. (2017). Traditional and cyberbullying co-occurrence an ditsrelationship to psychiatric symptoms. *Pediatrics International, 59(1)*, 16-22.
- [22] K. H. Do. (2015). Analysis of affective, cognitive changes and behavioral responses of the victims of cyber bully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1)*, 81-109.
- [23] J. Raskauskas & A. D. Stoltz. (2007). Involvement in traditional and electronic bullying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564-575.
DOI: 10.1037/0012-1649.43.3.564
- [24] H. N. Ahn. (2007). An Empirical Review of Complex Traum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6(1)*, 105-119.
- [25] Y. J. Kim. (2002). The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variables on somatization(docto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26] E. S. Joo, S. A. Shin, B. S. Kim & J. Y. Kim (2011). Modification Development and Validity Analysis of Korean Focusing Manner Scale (KFM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4)*, 1111-1128.
- [27] E. S. Joo, S. A. Shin, B. S. Kim & J. Y. Kim (2016). Development and Validity Analysis of Korean Focusing Manner Scale-Revised (KFMS-R).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1)*, 23-33.
- [28] Y. J. Im, E. S. Joo & S. M. Bae. (2015). The Moderating Effect of Focusing Manner between Attachment Style and Anger Expression Style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261-287.
- [29] Y. MORIKAWA & H. FUKUMORI. (2007). Relationship between Focusing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Special Plan PCE2006 Special Feature of German Society). *Clinical Psychology of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Psychology Center of Kyushu Industrial University,(2)*, 147-153.
- [30] D. W. Han, K. G. Jeon, J. K. Tak, C. H. Lee & G. H. Lee. (1993). A Study on the Living Events and Individual Difference Correspondence Influencing the Inadequacy of Lif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10(1)*, 1-35.
- [31] K. Y. Ham & K. Park (2005). The Relationships of Stress, Alexithymia and Somatization of Adolescents-Focused on the Highschool Student.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2005(18)*, 77-90.
- [32] E. S. Joo & S. W. Choi(2013), The Effect of Group Therapy Using Focusing on Somatization, Negative Affect and Alexithymia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2(4)*, 777-802.

주 은 선(Eun-Sun Joo)

[장학원]



· 1993년 8월 : University of Chicago
M.A(Committee on Human
Development)

· 1996년 8월 : University of Chicago
Ph.d(Committee on Human
Development)

· 1997년 2월 ~ 현재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상담심리와 문화, 상담자 성장, 인간중심 및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 E-Mail : esjoo@duksung.ac.kr

강 주 희(Ju-Hee Kang)

[장학원]



- 2012년 8월 : 강원대학교 심리학과(학사)
- 2016년 9월 : 덕성여자대학교 임상 및 상담심리학과(석사 수료)
- 2016년 8월 ~ 2017년 3월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이버상담원
- 2017년 3월 ~ 2019년 1월 : 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2019년 1월 ~ 현재 :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일제 동반자
- 관심분야 : 위기청소년, 청소년 상담자, 상담심리학
- E-Mail : juhee11447@naver.com

백 경 은(Gyeong-Eun Baek)

[장학원]



- 2014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학사)
- 2016년 9월 : 덕성여자대학교 임상 및 상담심리학과(석사 수료)
- 2016년 7월 ~ 현재 : 서울시 동작구청 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 관심분야 : 심리학, 상담심리학, 인간중심상담

심상담

- E-Mail : baekge@gmail.com